

(가칭)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규모, 지원대상 등 구체적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서울경제는 2.12일자(가판) 「정부 100조 투입... ‘관세방어막’ 친다», 「예상 3배 넘는 매머드급 지원... 특례 적용해 기업별 한도 없애», 「위기의 석유화학도 첨단기금 지원받는다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금융당국은 기금을 활용한 총 지원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책정했다.”
 - “지원대상 산업에 경쟁 격화 주력산업을 지원목록에 올렸다”
 - “정부가 석유화학 산업에도 첨단전략산업 기금을 통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”
- 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재정부 입장>

-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.5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“반도체 지원 프로그램(17조원)의 2배 이상 규모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”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- 다만, 기금의 규모, 지원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기금 조성·운영 세부방안은 3월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·발표할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	책임자	과 장	정 일 (044-215-4530)
		담당자	사무관	임동현 (binde87@korea.kr)